

사도행전의 세계

Dr. White Young Jeon

ITCS

강의 1 사도행전의 배경과 개요

I. 배경:

(1) 에베소 도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서 바울 당시 아세아에 있는 로마 식민지의 중심 도시이다. 이 도시는 코레스스 산맥과 바다 사이에 흐르는 가이스터 강(cyster) 어구에 위치하였다. 도폭이 70 피트나 되는 훌륭한 길이 이 도시를 통하고 아사아인의 대상 통로가 되어 지리적으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에는 아데미나 다아아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도시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되었다.

(2) 에베소 교회 -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 2 차 전도 여행때 처음으로 기독교와 접촉을 가 나 진 도시로서 바울이 없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대신하여 일한 곳이다. (행 18:20-19:1) 그 후 바울은 제 3 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3 년간을 지내면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큰 부흥을 보았다. (행 19:1-20:1) 그 뒤를 이어 디모데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 (딤후 1:3) 그리고 이곳은 오네시모가 일한 곳이기도 하고 (딤후 1:8) 사도요한의 사역의 본 거지가 되었다. (계 2:1-10)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세아의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회람 서신이다. (주후 61-63)

1. 개요

(1) 에베소서의 주제

(2) 에베소서의 특징

(3) 에베소서에 나오는 용어 해설

강의 2. 사도행전의 그 현장

본문: 행 1:1-11

요절:

서론:

(1)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내린 마지막 분부가 제자 삼는 사역(하나님의 형상회복)이다. 이것은 교회에 남겨두신 주님의 유언이며 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 지상명령이 수행된 첫 현장을 조명함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자화상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그곳이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저는 교회하면 언제나 사도행전의 교회를 생각한다. 그리고 과거 16 세기 말의 청교도들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역사상에 재현시키고자 한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 지상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도행전의 그 현장 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는다.

(3) 그러면 그 사도행전의 현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도행전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1.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대로 계승되는 곳이었다.

(1) 사도행전의 현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별도의 것인가? 성령의 행전이지 주님의 행전은 아닌가? 성경을 읽다보면 우리는 그 연관성을 분명히 본다. 그래서 누가는 서론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님이 전한 것 그대로, 아니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 곳이 사도행전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

- 1-2 절에 "성령으로 명하신 일(instruction)"을 말한다. 사도들이 40 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33 년의 사역 속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거하신 교훈이었다.

- 3 절에 "하나님나라의 일"(about the kingdom of God)이 나온다. 하나님나라가 바로 주님 증거의 주제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나라는 사도행전의 현장에서 증명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님은 지금 높아지신 신분으로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곳이지 다른 일하는 곳이 아니다.

(2)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나라가 임한 모습은 무엇인가?

1)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곳이다. (요 3:1) (행 20:) "우리가 어찌할꼬?"

2)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어나는 곳이다.(롬 13:)

(3)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도행전의 천국의 현장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사도행전의 현장은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이다.

2. 그 현장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다.

(1)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4)

5, 8 절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으라고 했다.

이 능력을 받고 나서 일하는 곳이 사도행전의 현장이다. 수단과 방법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을 통하지 않은 현장은 사도행전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나라의 현장이 될 수가 없다.

- 사도행전에 보라.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위험 속에서도 다신 기도함

고넬료 가정

안디옥교회 (성령이 시키셨다)

(2)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받나?

1) 약속된 것임을 이해하자. (성령충만, 성령능력, 재충만) -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것, 수단으로서 이것을 이해하자.

2)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을 들으신 줄 앎이라고 했다) 받아드리고 환영해야한다.

3) 기도해야한다.(회개와 신뢰) 그리고 받을 때까지 갈구하고 사모해야한다.

4) 감사해야한다.

(3)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현장은 성령충만한 개인들로 채워져 있었다.(엡 5:18)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 구제, 순전과 기쁨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인정을 받았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복의 근원의 성취이다.

(4) 여러분의 기도시간, 예배시간, 찬양시간에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현장이다.

3. 그 현장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는 곳이다.

(1) 행 1:8 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증인의 삶이 필요하다.

주님은 아버지의 증인, 사도는 주님의 증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단체이다.(롬 8:39) 그래서 우리는 3 가지 방면에 증거품으로 나타나야한다.

1) 인격으로서 증인이 되어야한다.

2) 말로서 증인 되어야한다.

3) 행동으로서 증인이 되어야한다.

=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 그의 모든 삶이 증인의 삶이었다. 죽기까지 그 복음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한다.

단회성과 연속성을 모두 믿는다. (오순절에는 연속성만을 믿는다)

= 사실상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가득 채워진 곳이다. 제도적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현장이다.

*** 결론:**

(1)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현장이 되어야한다. 어떻게? 나 자신이 하나님나라를 체험함으로서, 나 자신이 성령충만을 받음으로서, 나 자신이 증인으로 삶으로서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땅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도리 수 있는 것이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계획을 사도행전의 현장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제 1

강의 3. 내 증인이 되리라

본문: 행 1:8

요절:

서론:

(1) Y2K 로 시작한 일년간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보내고 또 한해를 선물로 받는 엄숙하고 축복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 금년에는 우리교회가 행 1:8 절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것을 뜻대 삼아 힘써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우리 교회가 주님의 유언 같은 사명을 성실하게 순종하려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다.

2)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오늘 본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생각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I. 증인이란?

(1) 행 1:8 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 일간 증거를 보이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 약속은 성령의 세례였다.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 임하여 모인 사람들로 시작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언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지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이것은 이때를 겨냥한 것이었다.

예: 아담에게서 이브를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온 것이다.

= 그러면 교회가 "내 증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본문의 좌우 사건을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셨다.

1) 순교자란 뜻이다.

- 증인, "말투리아"란 말은 순교자란 뜻이다. 목숨 내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

다. 수많은 선진들이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며 주님을 증거한 것은 바로 증인으로 산 것이다.

- 설교란 "죽어 가는 사람에게 죽어 가는 자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이다. 이것을 순교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모두들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 계시록 11 장에 말세의 "두 증인"은 누구인가? (42 달, 1260 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들은 바로 교회인 것이다. 두 증인은 능력을 받았고, 두 증인은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인 것이다.

= 우리 교회가 금년 일년만이 아니라 지상에 잇는 동안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바란다.

2) 주님의 제자란 말이다.

- 증인은 바로 제자가 될 때 증인될 수 있다. 왜냐하면 증거가 되려면 증거품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란 말을 사용하셨다.

마 28:19-20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한다. 아니 닮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년을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닮았는가? “섬기는 자”로 있는가?

사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 - 주님의 형상 - 우리의 형상) =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 예: 천당에 나타난 교회를 보라. 섬기는 주님의 모습,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라.

생명나무, 생명수, 성, 그리고 어린양의 인도를 받으며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을 새기고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요, 섬기면서 왕 노릇 하는 자로 나타나있다. (예배하는 자)

= “교회는 변호사가 아니고 증인이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사는 많다. 그러나 증거품이 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

우리는 금년 한해를 전진하면서 이런 증거품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는다.

그러자면 내가 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하나? 주님이 시키는 대로하면 변한다.

1) 수동적인 면 - 갈 때 변한다. 견물생심이다.

(예: 멕시코에 가니 생각이 다르다) - 우리는 너무 호강한다는 생각이 든다.

2) 능동적인 면 -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교회생활이다 - 출석이다. 모임에 출석할 때 오가는 사이에 변한다.

말씀공부이다 - 2.7 시리즈 반에서 진리를 나눌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기도를 배워야한다 - 머리만 커 가는 것이 문제이다 - 소화를 시키듯이)

(2) 금년한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복음화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II. 증거의 범위

(1) 우리가 아는 대로 순교자요, 제자인 증인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

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벼락부자가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기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어느 정도의 증인인가?

-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 유다에서의 증인
- 사마리아에서의 증인
- 땅 끝까지의 증인이다.

세상을 교구 삼아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다.

- 우리는 히브리서 11 장을 읽다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믿음의 증인들에게 달려있음을 본다. (26 번 “믿음”이란 말이 나온다) 믿음만큼 애매한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믿음으로 톱으로 커임을 당하기도 했고, 짐승가죽을 쓰고 죽기도

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다.

-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예: 또또)

“때려도 도망 다닌다”. 도피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맞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

(2)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아시나요?

= 예: 영국에 가보니까? 정말 형편없더라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입에다 무엇을 끼고

다니면서

게이들이 그렇게 많더라.

예: 미국 감리교회가 게이 문제로 양분 위기에 있다.

= 이런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들은 정신차려 우리가 담당할 범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통이 큰 사람

이 되어야한다.

= 교회에서 친목도 하고, 교제도 해야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로 세월 보내는 곳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걸머지고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 여러분은 이런 산 증인, 참 증인으로 이 시대에 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증인이 되어야한다.

1) 예루살렘(가정, 교회)에서의 증거

2) 유다(직장)에서의 증거

3) 사마리아(캘리포니아, 미국)에서의 증거

4) 땅 끝까지의 증거

=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III. 증인되는 방법

(1) 어떻게 이런 증인으로 살까? 말세의 두 증인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한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 조건이다.

- 제자들의 오순절 체험

- 개인적인 오순절 체험을 요구한다.

(2) 금년에 우리는 이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한다.

모든 모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한다.

- 거기에 능력이 있고

-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 거기에 열매가 있고

- 거기에 사명이 일어난다.

-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3) 예: 대학생들 성경 공부시키니까 그렇게 잘하더라

기도회 인도를 할 수 있다.

책임이 따른다.

예: 배가운동을 위하여 나아가자. (사람이 없다)

*** 결론:**

(1) 2001 년도는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2) 산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과제

강의 4. 성령충만의 원형

본문: 행 2:1-13

요절:

서론:

* 목표: 그리스도인은 성령충만의 원형을 잘 알아서 그것을 사모해야한다.

* 서론:

- (1) 본문내용- 오순절 성령강림의 현장을 기록한다. 성령충만, 성령세례의 역사가 일어난 최초의 현장이다.
- (2) 성령 충만의 원형은 어떤 것인가? 오순절 성령강림현장에서 찾아보자.

1. 성령충만은 교회 모임가운데 임하였다.

(1) 모임은 교회를 가리킨다.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특히 모임 중에 임한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다.

-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하지말자고 한다.
- 모이는 중에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보장해주셨다.

두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아간 한 사람의 실패는 전 이스라엘의 범죄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죄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하여야한다.

(2) 우리가 오늘 모임 가운데 성령충만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2. 성령충만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났다.

(1)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세가지 체험적 사건으로 나타났다.

1)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충만했다.

-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왕상 19:11)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들렸다.

(겔 1:4) 폭풍이 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 이것은 능력의 상징이다. (행 1:8)

성령은 바람과 같다.

예: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2) 불의 혀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 불의 혀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인다.

(마 3:14)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했다.

구원과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신다.

- 각 사람에게 임한 구원과 심판의 사실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성령충만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체험한다.

3)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서의 사건이 일어났다.

- 성령의 말하게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함 - 새술에 취하였다고 함

성령의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된다.

- 기적이 일어났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말하고,

열방을 대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한다.

- 성령충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엡 5:18)

성령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본다. 기이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

11 절- 하나님의 큰 일 (The Wonders of God) - 구속의 역사요 구속의 은혜이다.

(2) 성령충만함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은 위로 오는 것이다.

강한 바람소리, 불같은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오순절 현장에 나타났다.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재충만한가?

* 결론:

(1)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인도는 우리 모임 가운데 약속되었다. 오순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문제는 조건을 갖추는데 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진정한 회개와 사모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난다. 성령충만함은 능력의 삶, 죄를 두려워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원형이다.

(2) 이런 은혜가 오늘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과제

강의 5. 마가 다락방의 감격

본문: 행 2:1-13

요절:

서론:

(1) 감사의 달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로 감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마가 다락방 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1) 팔 아픈 것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2) 목사님과 함께 섬기며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는데 두 분의 영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눈으로 목격한 바이다. (어린이 같은 진실한 신학자, 목사님은 청교도 설교자 같은 설교자가 되는 분)

- 이것은 결국 오순절 성령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 여러분 모두 역시 마가 다락방의 공통적인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기도의 그릇이 준비된 오순절 날에 성령세례는 교회에 온통 부어졌습니다. 이때 모인 120 여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했다. 11 절에 열방의 대표(14 개 이상 나라에서 온 사람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맥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런 일을 보고, 다 놀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감격과 그 결과로 일어난 감사는 장차 오는 교회들의 원형적 감격이요 원천적인 감사인줄로 믿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이런 감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이런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오순절 성령강림의 현장의 감격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1. 그 감격은 교회의 모임중에 일어났습니다.

(1) 1 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모임가운데 성령세례가 주어졌습니다.

- 여기 모임은 교회를 가리킨다. 엑글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낸 무리란 뜻이고

큐리폰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소속이란 말이다.

- 이사야 2:에도 말일에 열방에 시온산으로 물려올 것을 예언했다.

이사야 에도 하나님이 애굽을 내백성이라고 하며, 앗스르를 내 하나님이라고 하리라고
하 션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본래 원하셨던 천하 만민의 구원이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교회가 구체적으로 탄생되는 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다.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특히 모임 중에 임한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다.

(2) 그런데 말세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에 젖은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건 강한 가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하자고 했다.

(예: 도마의 의심 - 손해 본다.)

- 모이는 중에 주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 주님을 만나는 모임에 언제나 승리, 평강, 임재가 일어나도록 되어있다.

여호와 닛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3) 우리 교회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모임이 참 많다.

이 것은 장래가 있다는 증거이다. 모임 때마다 우리는 오순절의 현장의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 는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예: 교회 모임은 발전소와 같다. - 이 모임을 존중하여길 때 주님은 일하신다.

2. 그 감격은 하나님의 임재의 반응이었습니다.

(1)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요?

세 가지 체험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이다.

(왕상 19:11)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겔 1:4) 폭풍이 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 강한 바람은 능력의 상징이다.(행 1:8)

예: 노아 홍수 직전 바람이 불어 물을 말리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 우리는 모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의 소리를 들어야합니다.

=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독특한 권위, 독특한 기능, 독특한 전달)

2) 불의 혀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불의 혀"(불덩어리)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심판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볼수있다.

(마 3:14)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불태우듯이 단번에 이루었다.

지금은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심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신다.

-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창 3: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님" - 거닌다는 말은 심판의 소리이다.

죄를 책하시는 심판의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이것의 재현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불의 모습이였다.

= 우리는 모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려는 용단이 일어나야한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현장이였다. 그래서 열방의 대표들 뿐 아니라 모임

무리들 이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 이것은 감정의 회개만이 아니다. 의지의 변화이다.(행 2:)

3)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일어났다.

-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함"(4) -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함

성령의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된다. (주객전도가 일어난다)

- "기적"이 일어났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말하고, 열방을 대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 다가 그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한다. (귀에 기적이 일어났다)

- 성령 충만의 원형적 모습이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히는 삶이다.

바울은 이것으로만이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이 가능하기에 충만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말
한다. 그럴 때 감격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 사랑과 복종의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 는 것이다.(엡 5:18)

- 성령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본다. 기이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게 집중하게 된다."

11 절- 하나님의 큰 일 (The Wonders of God) - 구속의 역사요 구속의 은혜이다.

= 바로 이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2) 이 세상은 다른 것으로 감격하기를 잘한다. 그리스도인의 감격은 성령 충만함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에는 감격과 감사가 있다. 이것은
위로 오는 것이다.

(3) 예:

* 결론:

(1) 이 감격과 감사는 우리 모임 가운데도 언제나 약속되었다. 오순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둘째 세째 열매를 계속 맺히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건을

갖추는데 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고, 진정한 회개와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

(2) 이번 감사절기에 우리의 모임에는 마가 다락방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과제

강의 6. 성령의 비존

본문: 행 2:14-21

요절:

서론:

(1) 본문의 내용

오순절의 성령강림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를 변중을 하는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이다.

(2) 우리는 요엘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부으심이 어떤 것인가를 배운다.

1. 그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1) 성령의 부으심은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17)

신약시대의 마지막 추수할 목적에서 부으시는 사건이다.

- 보라 은혜받을 만한 때라고 했다.
-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의 날이라 했다.
- 불과 피와 연기가 일어나는 시대 (심판) 영화로운 날(구원의 완성)이라 했다.
- 성령안에서 여호와와 강림하심이 분명해지는 날이다. 이날이 신약시대이다.

(2) 우가 사는 시대는 말세인데 이것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교회의 지체라 면)

- 단회적이고
- 연속적이다.

(3) 오늘도 이 은혜를 기대함으로 소낙비처럼 부으시는 풍성한 약속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자.

2. 그것은 성령의 부으심의 성취이다.

(1) 성령을 부으심 (17, 18)

- 과거에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슬비라면 신약은 소낙비이다.

- 성령의 폭풍,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시대이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약속된 시대이다.

(2) 그러므로 술에 취한 것 같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3) 지금도 주님은 부으시기 원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령충만 속에서 살아가야할 위치에 서 있다.

3. 그것은 강력한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1) 그 열매가 무엇인가? 교회가 말씀의 사역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 예언, 꿈, 환상, 예언 - 이런 종류는 모두 성령이 나타내시는 열매이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내는 은사이다.

- 계시록의 감람나무의 사역의 특징은 바로 예언이었다.(11:)

- 이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롬 10:9-10)

(2) 우리들의 비존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와야한다.

성경연구하고 읽어가다가 말씀에서 터져나오는 비존이 생겨져야한다. 이런 비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3)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한다.

1) 먼저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야한다.

2) 기도응답의 확신이 일어나야한다.

3) 성령충만 받은 자의 확신이 일어나야한다.

* 결론:

(1) 성령의 비존은 교회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체험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속의 역사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이시간에도 약속된 성령의 비존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그 은혜에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원 합니다.

강의 7.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 (행 2:22-35)

* 목표: 당신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를 앎으로서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가야한다.

* 서론:

(1) 성령의 부어지심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약속되고 있음이 놀라운 일이다. 지난시간 말씀드린 대로 요엘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 뿐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열매는 꿈과 환상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다.

(2) 이 시간에는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왜 예수님이 높아지셨는지"를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한다.

히브리서 4:14-15 절에 보면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곧 은혜의 보좌 앞 까지 담대히 나가라"고 하신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1. 구속의 완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셨다.

(1)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22)

하나님이 법 없는 자 손에 의하여 죽이셨다.(23)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24)

예: 다윗의 예언을 따라 된 것이다. (25-32)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33)

= 이것이 구원역사의 완성됨을 알리는 증거이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완성된 주님의 사역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이런 승리를 바라보고 기쁨과 큰 감격 속에서 살았다.(25-28)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더 큰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 입학생의 이름이 벽보에 붙어 있는 증거를 볼 때 기뻐하는 것 처럼 우리의 기쁨의
증거는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는 사건에 있는 것이다.

2.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높아지셨다.

(1) 33 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높아지셨다고 말한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은 무엇하러 교회위에 부어지셨는가?

1) 그는 약속된 성령이시다.

요엘, 이사야가 예언한대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 (행 1:4)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 (요 16:13-14)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오신분

=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그제 완성되는 것 뿐이다. 제도적으로
부으시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당당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강의 8. 우리가 어찌할꼬 (행 2:37-41)

* 목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

* 서론:

(1) 베드로의 설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들을 많이 배운다.

- 성령의 부으심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은 교회에 부어졌다는 사실
- 이 은혜는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약속된것라는 사실을 보인다.

40 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말이다. 이것처럼 정확한 적용은 없다.

(2)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기 도하려고한다.

38 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한다.

39 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 을 본다.

=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서인가? 회개하면 어떤결과가 오는가?

1. 회개란 무엇인가?

(1) 회개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 회개는 회심과 다르다. 회심은 한번있는 것이고 회개는 무덤에 갈때까지 있는 것이다.
- 회심한 자가 하는 것이 것이 회개이다. 회심하지 못한 자는 회개하지 못한다.

예: 가롯유다는 회개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회개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한 것이다.

예: 행 20: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동반된다.

=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죄인 하나의 회개"로 정의했다. 이 회개는 회심이다.

(2) 오늘 본문에는 이 회개에 대하여 말하기를 분명한 세 요소를 지적한다.

1) 개인이 회개하는 것이다. - 각각

2)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한다. -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구스내시의 세례

주예수의 공로에대한 믿음이다.

3)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한다. - 고백과 아울러 죄용서받은 사실을

받아드려야한다. (3) 이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가?

요일 1:9 절의 죄르 자백하고 그의 공로를 믿고 감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 이 회개의 과정은 성령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2.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그러면 개인의 회개에는 어떤 요소가 따르는가?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1) 지성의 변화 - 생각의 변화

2) 감정의 변화 - 애정의 변화

3) 의지의 변화 - 결정의 변화

- 애정은 배의 키와 같고 생각은 키를 움직이는 방향타와 같고 진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차 트와 같다.

(2) 다윗의 회개를 보라.

- 그는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했다.

- 그는 그것을 가지고 슬퍼했다.

- 그는 주께로 돌아가는 결단과 아울러 헌신을 다짐한다.

= 이런 진정한 회개를 지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된다.

3.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1) 회개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따른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회개가 없었다는 말이 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1)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편에서 법적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실이 나타나 는 것 뿐이다.

2)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약속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맛본다.

바람, 소리, 비둘기, 그리고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3)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41)

마지막 우리의 쫄인은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에 있다.

생각과 기호가 변한다. 육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된다.

* 결론:

(1) 오늘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배우를 하는 자가 되자. 정말 힘써야할 부분은 바로 이 회개 의 일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약복강 나루터의 야곱이 되자. 갈멜산의 불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자.

(2)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더 놀라웁게 일어난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기도모임이 많았고 모이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를 사리는

강의 9. 사도행전의 그 교회 (행 2:42-47)

* 목표: 초대교회의 실상을 알게함으로 우리교회의 위치를 알고 나아가고자한다.

* 서론:

(1)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사도 베드로의 활동으로 그 사건이 설명되었고 성령부어 주시는 사건임을 말하면서
얼마든 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3000 명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120 명이 3000 명으로 불어났다.

예: 저수지와 같은 곳에 저장된 주의 능력이 조건만 갖추어지면 임하도록되어있는 것은
기 정사실이다.

(2) 행 2:42-47 절은 사도행전교회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역사상 이런 교회가 될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이 부흥의
분별기준이다.

1. 그들이 힘쓴 일

(1) 그들이 힘쓴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프로스칼룬테룬테스"라는 말은 달라붙다,
바빠일하다, 물두하다, 집착하고 계속하다, 시간을 많이 주다는 뜻이다. 그들은 무슨
일에 강조를 두었는가?

여기 네가지 사실에 집중한다.

1)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다. 다다케는 교훈을 가리킨다. 복음의 내용을 말한다.

성경공부 다. 사도들은 이것을 힘썼다.

2) 교제를 힘썼다. 코이노니아란 밀접한 관계, 동료의식, 형제연합의 증거, 참여 및 나눔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 그들은 서로 한 형제임을 알게되었고 서로 나누었다. 형제이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지 나누니까 서로 형제가 아니었다.

3) 떡을 떤었다. 애찬이다. 성찬과는 다르다.

4) 기도하기를 힘썼다. 프로슈카이스란 말은 방언기도 영안에서의 기도를 가키며(고전 4:14), 중보기도(마 5:44)와 길게 기도하는 것(눅 18:11)을 가리킨다.

(2) 이렇게 초대교회가 힘쓰는 일은 무슨 업적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저들의 주업무였다.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었다.

(3) 오늘날 우리교회는 얼마나 이것을 닦았느냐? 정말 이 일을 얼마나 힘쓰는가? 나 자신이 이것을 힘쓰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교회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다른 일에 미쳐있다면 문제이다. 말씀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2.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

(1) 누가는 그 때의 정황을 시간을 두고서 기록한다. 현재분사를 가지고 말한다.

그 열매가 45 절이하에 나타난다. 주로 6 가지로 언급되었다.

1) 두려움이 있었다. 여기 "포네"라는 말은 행동이 동반되는 두려움이다(마 28:8), 깜짝놀라는 것

(Alar,m), 노예적 두려움, 존경과 경외심을 말할 때 사용한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일하시는 증거이다.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하여있다는 증거이다.

= 하나님의 주권주의가 나타났다.

2) 믿는 사람들의 통용생활 (45) 이기주의가 없어진 증거이다. 주님 중심주의 이기 때문이다.

3) 구제생활 (디에메리존) - 각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4)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든 사람과 함께 은혜를 받았다.

집집마다 마음의 기쁨과 순전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5) 찬양과 기쁨을 서로 소유했다. 목적이 분명하였기에 기쁨이 계속되었다.

6) 주님이 믿는 자를 더하셨다. (프로스티세미) 이미 있는 것에 덧붙여준다는 말이다. 벌써 있게 한 것도 주님이 하시고 덧붙여주신 분도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다. 올바른 성장철학을 보인다.

(2)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의 열매를 배운다.

- 오늘날 성장철학의 잘못을 본다. 인간이 먼저 찬양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몰두하니까 주님이 더하셨다.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한다. 우리의 힘쓸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다.

- 그리고 성령충만이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찼다. 오늘날 성령 충만을 많이 말하면서도 열매없는 것은 왜 일인가? 엡 5:18 절이하에 성령충만함 받은 자의 모습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 교회생활 잘 되니까 가정이 잘 되었다는 원리가 나타났다. 성령충만을 받으니까 가정에 기쁨과 순전이 있었다. 이는 그 구성원의 마음에서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 결론:

(1) 우리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면 어디로 나가야한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전히 성경공부이다. 여전히 기도하는 일이 부족하다.

이런 부족을 메꾸자. 지금 이 시간부터, 나부터 이런 길을 걸아가자.

(2) 교회의 부흥운동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이다. 진정한 부흥이지 인위적이 부흥이 아니 다.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터져나오는 은혜만이 참 은혜이다. 인간이 아무리 옥합을 깨뜨려 도 주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드려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 는 일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자. (*) 일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화선인 것이다.

강의 10. 그 선지자의 역사 (행 3:11-26)

* 목표: 그리스도는 지금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한다.

* 서론:

(1) 본문의 내용

- 앓은 병이의 치유의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
- 그 해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권면함
-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언급한다.
 - 1) 그의 고난(죽음) (18) - 모든 선지자들
 - 2) 그의 순천과 재림 (21) - 거룩한 선지자들
 - 3) 그의 절대권위 (22-23) - 모세
 - 4) 이 때 (신약의 종말시대) (24) - 모든 선지자
 - 5) 복의 근원 (25-26) - 아브라함

(2) 이 사건 속에서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1. 그는 고난의 주님이셨다. (18)

(1)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그의 고난을 예언하였다.

이사야 53:

시 22:의 예언을 보라

- 그러므로 그들이 빌라도의 손을 들어 죽이도록한 것은 그들의 의도적인 사악한 죄악이었 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대로 이루심에 불과했다.

- 그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되고 유쾌한 날을 얻게되는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2. 그는 절대권위의 자리에 계셔서 지금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이시다

(1) 21, 22-23 절에 그의 절대권위의 자리에 오르심을 예언한다.

- 21 절 만유의 회복을위하여 하늘에 잠깐 받아두셨다. 그는 곧 오신다고 했다.

- 그러면서 22-23 절에는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그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다.

절대 권세의 자리인 왕의 자리이다.

- 이 앓은 병이는 그의 말을 들음으로 살아났다.

-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이다.

(2) 이런 왕이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다.

예: 베드로의 모범을 따라서

-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명하고 성령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주신다.

-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도행전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 문제는 언제나 우리 속의 "육"에 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육의 부패성을 이겨야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인

것이다.

3. 그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시다.

(1) 다윗의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말한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했다.

이 형통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임마누엘이다. 모든 족속에게 진정한 복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안에서의 삶”이다.

거기에는 넘치는 생명이 있고 넘치는 열매가 있다. 소망과 의욕과 장래와 기쁨과 창조가 있는 것이다.

- 바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였다.
- 이 복은 그리스도이시다.
- 이 복은 자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갈 3:14)
- 이 복은 앓은 병자와 같은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부활의 강력이다.
- 이 복을 받을 때 사도행전의 현장이 재현된다.

(2)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복을 받은 자이다. 이 복을 마치 받지 않은 자처럼 생각 하지말라. 그것을 받아드리고 그것을 행사하라. 주장하라. 역시 그 복의 현실화는 우리자신 의 부패성이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는데 있다. 지금 입을 벌려 그의 능력을 구하라. “너희 가 회개할 때 유쾌하게되는 날이 이른다”고 했다.

* 결론:

(1) 베드로의 의한 이 사건의 해석은 성령의 해석이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호라과 승천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 일하시는 분이 시다.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은 바로 복음이다. 성령의 은혜이다.

(2)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은혜가 확인되고 그 역사를 체험하기 바란다.

강의 11. 유일한 구원주 (행 4:1-22)

* **목표:** 당신은 구원주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사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한다.

* **서론:**

(1)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의해 만유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보았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 한분의 말만을 잘 들을 때 소망이 있고 축복이 넘칠 줄 믿는다.

오늘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앞에서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해아래 “유일한 구원주는 오직 예수뿐임을 생

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한다.

- 베드로의 전도로 5000 명이 예수믿음(4)

- 관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심문을 받음(5-7)

- 베드로의 응답- 유일한 구원주 예수(8-12)

1)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된다.(10) - 나의 건강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된 다.

2)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11) -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멸하면 안된다. 그를 중심에 모셔야한 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시다.

3)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12) -(요 14:6)

- 그들을 위협하고 돌려보냄(21)

(2) 여러분의 눈을 주님에게로 돌리시기 바란다. 문제는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다른데로 돌리는데서 일어난다.

-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시기 바란다.

- 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I. 예수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앓은뱅이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40 년 묵은 문제였다.

- 인간 영육의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만 해결된다.

죄에서부터 성령충만받기까지

1) 죄문제 (문제의 뿌리)

2) 죄책(문제의 증상) - 예: 사마귀

3) 형벌(문제의 열매) - 가인이 느낀 중한 죄벌

4) 풍성한 삶(죄사함, 영생, 넘치는 삶, 사명)

-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할수 있거든 좀 해달라”는 말이 주님에게는 황송한 말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나아가 모든 문제를 아뢰자.

가정, 직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에게만이 놀라운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II. 예수님을 통해서만 담력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 예수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는 평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협이 몰려와도 담대할 수있다. 다. (예: 사자처럼) 이것처럼 멋있는 삶이 없다.

예: 관원 앞에서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담대했다.

- 13 기탄없이 말했다.(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다)

-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원수들이 걱정을 했다)

- 19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력의
근우녀이 하나 님 앞에 서있는 데 있다)

(2)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 예: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 예: 증인이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담력을 받아야한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서게한다. - 예: 도피자가 아니다. - 수로보니게 여인같은 믿음

III. 예수님만이 자신의 뜻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이다.

(1) 주님은 구원주일뿐 아니라 나의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다하여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협을 당했다.

예수님을 재판한 공회이다.

-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셨다.

예: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2)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성령의 그릇이 되어야한다.

주님은 성령안에서 자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가신다.

“주는 영이시다.”

* 결론:

(1)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음에 대한 나의 고백은 얼마나 진실한가?

(건강, 경제, 실패)

(2) 이런 주권자 앞에 뜨겁게 간구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 받자.

강의 12. 성령의 재충만 (행 4:23-31)

* **목표:**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한다.

* **서론:**

(1)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오직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담력은 바로 우리의 담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사도들이 본을 보였고 이제 우리가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가 된 것이다. 금년 한해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담대한 증인으로 살기를 축원한다.

- 오늘 본문은 이런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1) 사도들이 심문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놓여서 동료(다른 사도들)에게 고한다.

2) 보고를 받은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일심으로 기도한다.(24-30)

3) 합심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

(2)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오순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본다.

성령의 단회성만을 믿는 자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는 연속성을 동시에 믿어야한다. 이것이 맥추절에 일어난 것은 교회에 이런 이삭이 계속 충만하게 일어 날것을 보

인다.

= 부흥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재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재충만이란 무엇이며, 또 그 충만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이지를 생각하려 한다.

1. 성령의 재 충만이란?

(1) 이것은 "성령충만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오순절에 임한 동일한 성령이 다시 충만케 되는 경험이다.

이는 성령이 영원히 살아 계시고 일하신다는 증거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망의 내용이다.

이는 성령 재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엡 5:18 -진행형으로 되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과 담대한 상태는 바로 성령충만한 때였다.

- 사사들 (기드온, 삼손) - “여호와와 신이 임하매” (요 3:) 임의로 움직이는 것을 잘

모 르지만 그 움직임이 있다. (예: 수맥의 흐름- 실재로 그 물의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

-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런 증거들은 많이 나온다.

- 예수님도 사역에 있어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셨다.

- 사도들의 인내와 기적과 효과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고 언제나 같이 움직였다.

=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원한다면 이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아야한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만상태를 점검하고(온도 측정처럼) 이 충만함을 순간순간 사모하고

구하자. 피니의 말대로 “성령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 자체가 죄악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주여 나의 성령충만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연기 맛과 불 맛,

메마른 식물의 모양과 이슬비와 소낙비를 맞은 식물의 모양

= 여러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벌써 이런 재 충만상태를 경험하시기 바란다.

II.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방법(동기)

(1) 이런 담력의 근원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합심기도였다. “일심으로 기도할 때(24)”

그 보고를 받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드렸나?

1) 기도의 대상

- 만유의 대 주재이신 창조자에게 기도했다.

그만이 주인이란 말이다.

(Lordship 이 인정되기 전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 주님에게 주목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이것이 기도의 90%를 차지한다.

- 예: 왕의 신하의 믿음 - 나아와 구하는 자체가 주님을 주목함이다.

믿음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 그래서 Calvin 도 기도 속에 제일 먼저가 경외심이라고 했다.

=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란다. 마음의 혼미와 혼란 속에서도
사랑스러운 우리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2) 현실의 보고

-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상태를 보고했다.

시 2:의 다윗의 증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서있는 위치를 고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진실본위로 기도하라.

= 열방, 세상의 군왕, 족속들, 관원들,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있다.

그러나 죽이려고 모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고 보았다.

= 그들은 성경적 안목(평소에 알고있는 말씀이 기억되었다)으로 현실의 사건을 보는
눈 이 있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이다.

= 여러분들은 자신의 현실을 성경의 거울 앞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한다.

성령님은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3) 간구의 내용

-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증거이다.

병을 낫게 하소서(약 5:)(막 16:)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예: 앓은뱅이의 사건)

= 무엇이 먼저인가? 표적이나 말씀이나, 주님은 먼저가 말씀이었다.

성경을 읽어놓고 믿어라. 좀 어리숙한 것이 좋다.

= 금년에 우리는 이런 기도가 흘러 나오게 하자.

(2) 이렇게 교회의 합심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은 한 마음의 간구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

= 말씀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자.(설교와 전도)

III. 성령충만함을 받은 증거

(1) 이런 간구를 통하여 성령충만은 임했다. 오순절의 능력이 계속 나타났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3 가지 증거가 나타났다.

1) 임재 - 장소가 진동했다. 예: 시내산의 떨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다.

2) 담력 -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담력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이다.

3) 연합 - 한 마음이 있었다. "다" 그 은혜를 받았다.

(2) 우리교회는 이런 증거가 어느 정도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 결론:

(1)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우리는 봉사해선 안된다.

예: 피니의 말대로 우리는 이런 충만한 경험을 사모하자.

(2) 이번 성회가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모두다 재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간구하자.(*).

강의 13. 주의 영을 시험치 말라 (행 5:1-11)

* **목표:** 그리스도인은 경외심으로 가득차야한다.

* **서론:**

(1)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애써야한다.

오순절에 임한 현상은 시내산의 강림이상의 역사이다.(불의 혀, 광풍의 소리)

재 충만의 역사도 그 이상의 역사이다.(진동)

그 이유는 신약은 완성(절정)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 은혜의식이 없는 경건의 모양도 문제이지만 경건이 없는 은혜의식은 더욱 더 문제이다.

(굳어버리고 치우친다)

- 오늘날 문제: 점점 더 일일정보화시대로 지구촌이 좁혀진다. 노력의 과정을 무시한다.

쉽게 돈을 버니까 그 가치를 모른다. 이것은 신앙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의 문제는 경외심의 결핍이란 적신호가 보이게 된다.

- 본 웨퍼같은 진보주의적 신학자는 "값싼 은혜를 개탄한다"

이것은 성경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경종이다.

(2) 오늘 한 실례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인다.

왜 그들은 한날 한 시에 죽었는가? 은혜가 충만한 시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경외심(두려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5, 11, 13 절에는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말하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두려워했다

(3)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왜 경외심이 없었는가?

I. 그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다.

(1) 탐욕이란 욕심이다. 죄된 욕심을 가리킨다.

- 욕은 더러운 욕망이다.
- 욕체의 소욕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 욕은 무익하다.

1 절 "아나니아란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a piece of property)를 팔아"

8 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값 판 것이 이것 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뿐이로다"

= 땅 값 얼마를 감추었다. 돈에 대한 애착과 욕망 때문이었다.

감추지 않아도 남겨 놓 재산이 있는데, 그 구분이 불분명했다.

이것이 탐욕의 사람의 특색이다.(예: 외상지기를 좋아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 성령충만한 사도행전의 현장의 열매와는 전혀 달랐다.(행 2:44-45, 4:33-37)

재리의 유혹이 그를 막았다.

(3) 예: 아간의 경우 역시 돈에 대한 욕망이었다.

그는 탐욕 때문에 자기 도망하고 자기 집안도 다 망했다.

이는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예: 이것은 거듭난 신자에게도 마귀의 역사로 일어난다.

베드로의 명예욕, 권력욕은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침돌(stumbling block)이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오는 것만을 좋아해야 한다.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야한다. 그래야만 경외심을 가진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예: 솔로몬의 간구처럼 자기를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좋아해야 한다.

= 여러분에게 이런 욕망이 가득차기를 축원합니다.

II. 그들 속에 있는 거짓 때문이었다.

(1) 탐욕과 함께 형제같이 역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이다.

3 절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4 절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 절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 진실하지 못할 때 마귀는 역사한다.

거짓된 만큼 마귀는 그만큼 일하게 되어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 샘플이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한다.

예: 그들은 진실치 못했다.

죽음으로서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예: 오늘날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가? (망상) 꿈, 비존, 말등

기도응답은 철저히 진실 본위여야 한다.

예: 야곱의 브니엘을 보라. 진실이 아니면 안된다.

- 정영화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니까,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의 대화 속에 "손은
에서의 손이로되 음성 은 야곱이로다"- 거짓되다는 말이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
그 것이 얼마나 귀한가?

바치라고 한 것은 성령의 지시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외심이 없음으로 탐욕의
바다에 그 귀한 것을 잠식 시켜 버렸다.

- 예: 조세형씨의 원정도독질/ 왜 그랬을까?

=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 한나처럼 진실되이 아뢰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심적인 고백이어야 한다.

III. 이 경외심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

(1) 이런 탐욕과 거짓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발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 한 것이다. 자기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같은 경우에 쉽게 떨어진다.

-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까?

1) 말씀을 묵상하라

- 묵상이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 예: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쓴다. 눈의 각막을 팔고, 그 몸의 간암을 얻는다.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 감동적인 장면이다.

이것을 쓴 분이 교도소에서 매일아침 예배드리는 강패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소설로 그린 것이 이 작품이다.

이것보고서도 감동을 받는다면 성경은 감동의 원천이다.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희한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덮어놓고 믿어라.

예: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되고 경외심이 생긴다.

예: 눈오는 곳에 Green Color 가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의 그 광경이랑 같다.

얼마나 설레이는지, 하나님을 알게되면 자연히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다.

2) 기도하라

- 그러나 주의할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외식의 노예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은혜가 올 때는 내가 얼마나 거짓되다는 것이 발견되어진다.

- 예: 변화산의 제자들은 이 은혜를 받으니까 감히 자기들과 주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외심이 생긴 것이다. 기도하는 자가 경외심을 갖는다.

*** 결론:**

(1)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언제나 약속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분께 나아왔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진실되며 하나님만을 위한 선한 욕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자.

(2) 말씀을 무작정 먹자. 거기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 모두 이런 “경외심을 가진 진정한 은혜”를 받자.

강의 14. 성령의 일꾼들 (행 6:1-7)

* **목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 **서론:**

(1) 지난 시간, 부흥하는 교회에 일어난 비극적인 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핍박은 더해갔다. 5 장 후반부에 보면 또다시 사도들은 잡혔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중에 교회는 은혜로 점점 더 성장했다. 물건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이 계속되었다. 교회는 수적으로 점점 더 많아졌고 봉사도 열심이었다. 그런데 감사가 넘쳐야 할 교회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불평은 옛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한 원인이었다. 언제나 어두움은 쉽게 찾아오는 법이다. 순수한 음식은 금방 상하기 쉽다. 그것도 봉사를 둘러싼 불평이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1)라고 했다.

한동안 나는 이 구절을 잘못 안 일이 있었다. 빠진다는 말을 몰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말이다. 글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맞선 원망했다. 교회 내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주도구녀을 행사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독버섯이 부흥하는 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 불평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교회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한다.

- 그때 사도는 교회의 적신호를 바라보았다. 근본 원인이 시작될 때 즉시 치료책을 구했다.

전염성이 강한 죄악은 작을 때부터 그 뿌리를 뽑아야한다. 이것이 지혜이다.

- 사도들은 분쟁의 원인을 다른데 찾지 않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열심보다 공궤하는 일에 더 심혈을 기울인데서 찾았다. 문제점의 정곡을 꽤 뚫어 본 사도들은 그 해결책으로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것도 우선순위인 기도와 말씀전하는 일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전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것을 하라고 부른 것이다.

(2)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사도들이 내세운 자격조항은 구약의 일꾼이나 바울의 목회서신에 나온 자격조항이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일꾼이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1. 지혜가 충만해야한다.

(1) 사도가 제시한 집사의 자격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꾀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지혜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계를 갖는다. 잠언과 전도서의 수많은 사건이 모두 지혜를 말하나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한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다른 하나는 땅의 지혜라고 했다. 땅의 지혜는 요란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으로 나타난다.

- 요 8: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진리이신 주님을 공격한다.

- 주의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 그들은 마귀의 종으로 참 자유를 알지 못했다.

- 이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열어주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지혜가 요청된다.

예: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자

성전이 더러울 때 주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의분을 가지시면서 쫓아내셨다.

이것은 주님의 지혜의 표현이다.

동시에 그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산으로 가셨다.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피하셨다.

= 주님은 때로는 의를 드러내는 지혜를 사용하셨고, 때로는 그것을 피하셨다.

= 우리는 피하는 지혜가 많아야한다.

예: 사도들은 여기서 대안을 제시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그들은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피했다.

(2) 오늘날 정말 지혜가 요청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언제나 그리스도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여야한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한다. 이는 그리스도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II. 믿음이 충만해야한다.

(1) 성령 충만한 일꾼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 믿음이란 무엇인가?

- 믿음이란 언제나 밀받침이 있는 것처럼 든든한 대상을 전제로 한 말이다.

예: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란 말이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다.

- 믿음이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모두 믿음이 아니다.

예: 세상의 Betseller 를 보면 거의다가 등정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삶이냐 아니다. 이것은 신념의 삶이지 믿음의 삶이 아니다.

- 믿음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기적은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평가할 수 없는) 결과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야만 다.

-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 초대교회는 문제가 여전히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목적을 이루어나갔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을 주시려는데 있다.

= 교회는 이런 믿음있는 자를 요구한다.

여러분은 믿음있는 자가 되시기 바란다.

(2) 예: “가계의 저주의 흐름을 끊어라”라는 책을 내서 문제를 일으킨일이 있다.

모든 곳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다.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 그런데 성경은 이 저주를 이미 주님이 다 정리해 주셨다고 말한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를 피고 산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야한다. 이것이 교회일꾼에게 필요한 것이다.

III. 말씀이 충만해야한다.

(1) 성령의 일꾼은 여전히 말씀에 충만해야한다.

사도들의 직무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임무이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기 쉽기 때문에 직분을 세운 것이다.

목사가 다 하면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 일꾼은 말씀사역을 도울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에 충만해야한다.

- 7 절에 말씀이 왕성했다.

(2) 그러자면 우리는 기도해야한다.

예: 이번 집회에서 저는 기도사역이 교회에 줄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실천해야한다.

예: Moody 가 하는 말이 “말씀읽을 때 믿음이 생기더라,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더라”

*** 결론:**

(1) 성령의 일꾼인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지도를 받기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다.

(2) 지혜충만, 믿음충만, 말씀충만하여 성령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강의 15.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행 11:1-18)

* 서론:

- (1) 하나님나라는 고넬료 가정의 부흥회와 더불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부터 세상(이방)을 향한 관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열방이 빛으로 몰려오며, 시온 산에 우뚝 선 성전을 향하여 열방이 그리로 몰려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쓰임 받은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1)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의 일을 답변했을 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18)
- (2) 오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합니다.

1.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 (1) 문자 그대로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1)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이 회개(repentance) 혹은 회심(conversion)입니다. (눅 15:)

2) 보통 회심은 일생에 한번 일어나는 것이라면 회개는 회심한 사람이 무덤에 갈 때까지 주께로 돌아가는 평생의 일입니다.

3) 바른 회개는 믿음이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때는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기도 했고,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표현하기도 했고(행 16:31),

어떤 곳에서는 이 둘이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눅 1:)(행 20:)

(2)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잘 자라서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II.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1)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비추어볼 때,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길을 발견합니다.

1)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17)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2)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4)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바울은 강론(설교)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강론에는 언제나 뜻을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결부된 말씀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증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3)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15-16)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고넬료 가정에도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세례는 이렇게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놀라운 사건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고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베드로가 말한 생명 얻는 회개가 없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4)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행 2:38 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the gift of Spirit, NIV)로 받으리니”라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행 2:33)

(2)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복음을 잘 받는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 결론:**

생명 얻는 회개가 부흥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참 교회로서의 새로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부터 이런 생명 얻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 참 구원의 생명력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강의 16. 교회의 간절한 간구(사도행전 12:1-18)

* 서론:

(1) 하나님나라 확장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져서는 안 되는 두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 (suffering)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도(prayer)입니다. 복음이 증거 되는 곳마다 자세히 살피면 언제나 이 두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에도 여전히 심각한 흉년이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각 힘을 다해 예루살렘교회를 위해 부조함으로 흉년을 이기고 다스리 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서 생긴 은사로 이룬 일이었습니다.(13:3)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예루살렘교회에서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왕이 야 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가두어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 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께 빌더라”(5)고 했습니다.

(2) 이 시간은 교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I. 기도란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1) “교회는...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습니다.

마 16:19 절에 약속된 것은 교회가 땅에서 풀고 맬 때 하늘에서 풀고 매이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히자 “교회는...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 예: 다니엘의 경우

- 예: 에스더의 경우

=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딤후 2:1-2)

(2)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의 손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그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할 때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II. 기도는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성을 필요로 합니다.

(1)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교회는 간절했습니다. (행 1:14)

- 간절한 기도란?

1)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에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2)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3)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4)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합심기도입니다.

(2)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한 주님의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본으로 삼아야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꾀계를 대적하며 힘써 기도합니다.

III. 기도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 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 1) 기도하는 중에 응답되었습니다.
- 2)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초자연적인 기도응답의 증거를 찾아보세요.
- 3) 우리가운데서 일하시는 살아 계신 주님의 손길을 맛볼 때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2)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체험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강의 17. 영광을 그 분께 돌려라! (사도행전 12:18-25)

* 서론:

(1)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고전 10:31) 이것은 우리 소요리 문답 제 1 문에 나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준을 잊고 자기 영광을 구한 헤롯왕의 불행을 보여줌으로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더 새롭게 가르쳐주었습니다.

(2)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를 죽이려던 헤롯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보임으로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의 경우나 야곱의 경우처럼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으로 도리어 모든 일은 정반대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 더욱 더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자.

I.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

(1)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기 때문에 일연의 궤계로 헤롯왕과의 친화관계를 가지려고 블라스도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복을 입고 나온 헤롯의 연설을 들은 그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아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과 칭찬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파멸의 선봉이며, 사람의 칭찬에 오르내림은 하나님의 화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2)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경고합니까?

- 렘 17:5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 잠 3:5-6 자기 명철이나 하나님이나
- 시 1:1-6 율법을 묵상하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 롬 8:6-7 성령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이런 것은 모두 다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멸망자가 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3) 우리 주변에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을 찾아 보라. 누가 있습니까?

II.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월권하는 헤롯왕

(1) 이 칭찬의 소리를 듣고 헤롯은 회개하거나 겸손하지 않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습니다. 곧 주의 사자가 쳐, 벌레가 먹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사자로 왔지만, 헤롯에게는 심판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2) 느브갓네살왕의 경우도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총명을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있다가 다시 회개하자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 육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적하고 자기 배를 채울 때

바울은 안타까워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3) 나는 내게 오는 영광을 어떻게 주께 돌리는가를 살펴봅시다,

III.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

(1)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렸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는 연장선을 그려보면 교회의 부흥을
겨져온 것입 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 1)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 2)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을 제함으로서 돌립니다.
- 3) 자아부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 4)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을 주께 돌리는 가장 적극적인 길입니다.

강의 18. 바울의 전한 복음 (사도행전 13:12-41)

* 서론:

(1) 1 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밤빌리아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마가요한의 도중하차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 실루기아 - 구브로 - 살라미 - 바보 - 밤빌리아 - 버가 - 비시디아안디옥

(2)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한 회당설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I. 그것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1) 17-23 절

- 조상의 선택

- 애굽에서의 인도

- 가나안 정착

- 사사시대

- 왕정시대

사울

다윗

- 예수 그리스도(히 1:1-2)

(2) 요한의 세례(24-25)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 예언이 성취됨 (26-30)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31-32)

II.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복음입니다.

(1) 구약의 예언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사건으로 성취된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 시 2:7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성육신, 죽음)

- 시 16:10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

(2) 다윗과 예수님의 대조

- 36-37 절

III.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1) 39 절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 믿음을 대조시키면서 “믿음으로 얻은 죄 사함”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죄 사함(remission)을 가리킵니다.

(2) 그러나 이것을 멸시하여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41)

***결론:**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란 점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다. 당신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18. 안디옥교회의 모본 (행 13:1-12)

* 서론:

(1)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믿음가운데 더 견고해져서 마침내 땅 끝까지 나아가는 이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2)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활동과 선교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I. 교회활동에서의 모범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인정을 받는 영력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았습니까?

1)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 일꾼들을 보면 지위고하와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1)

2)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12:22,27) (1)

3)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언제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기에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2)

4) 열심히 금식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뜨거운 기도의 은사로 섬겼습니다.

5)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 가장 유능한 사역자, 사울과 바나바를 가장 어려운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조금도 아까와 하지 않고 그 일을 받아드렸습니다.

(2) 우리교회에는 위의 5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합니까?

II. 선교활동에서의 모범

(1) 성령의 지시를 순종함으로 시작한 안디옥교회의 선교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일을 당연히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실루기아의 바보(Paphos)에서 복음전파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3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7 절)

(12 절)

2) 증거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9 절)

3) 영적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10-12 절)

(2)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복음사역에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서로 말해봅시다.

강의 20.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행 13:42-52)

*** 서론:**

(1)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위에 임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한마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넘치는 값없는 넘치는 선물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사도의 간절한 축원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시공을 초월 하여 항상 넘치도록 약속되었으며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늘 충만하도록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야합니다.

(2) 항상 주의 은혜가운데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관해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I. 은혜 받을 자는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1) 누가가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48),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46)란 말을 쓴 것을 보면 은혜 받을 자는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었다는 뜻입니다.

1) 엡 1:4-13 성부의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2) 롬 8:29-30

(2)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작정되었으나 믿지 않는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합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전하여 결신시켜야 하겠습니다.

(요일 2:2)

II.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임합니다.

(1)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약속된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하고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44)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2) 말씀을 존중하였다(48)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다 믿더라”

3) 말씀을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46)

(2)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원천이기에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합니다.

III. 은혜는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1) 43 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있으라"고 하십니다.

1) 좋을 때(43)- 사람들이 좇고 인기가 상승할 때 여전히 주의 은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2) 고난 당할 때(52)

- 핍박받는 제자들은 도망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2)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은 은혜를 받는데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과 후의 구분선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합니다.

1) 요나의 경우(욥 2:1-4)

- 은혜 받기 전

- 은혜 받은 동기

- 은혜 받은 결과

2) 야곱의 경우(창 32:22-32)

- 은혜 받기 전

- 은혜 받은 동기

- 은혜 받은 결과

***결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은혜생활을 하기위해 예비된 은혜의 샘(Stream)(요 7: 38-39)으로
나아갑시다.

강의 21. 복음 증거에 따른 표적 (The Signs That Follow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행 14:1-18)

* 서론:

(1) 어제나 오늘이나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 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 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마태복음 4:23 의 말씀대로 1) 복음 증거하는 일(설교) 2) 가르치는 일 (교육) 3) 치료하는 일(치유)이 지금도 계속되어야합니다. 사실, 교회는 이것 하라고 부름 받은 공동체 외에 다른 곳이 아닙니다.

(2) 본문에 나오는 1 차 전도여행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바울 일행에 게 일어난 공통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봅시다. 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어 떻게 일어나는 지를 생각해봅시다.

I. 복음이 바로 증거되었습니다.

(1)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3 절)

(7 절)

(15-18 절)

1) 증거자의 겸손(3 절) -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2) 회개에로의 초청 (7 절) -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3) 인격적인 믿음 (17-18 절)

-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에서 증거된 그리스도

- 이방인들을 위해 일반은총으로 어림פות이 증거된 그리스도

(2)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렇게 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이 복음을 믿습니까?

II. 고난이 따랐습니다.

(1)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봅니까?

(2 절) (13:50-51 절 참조)

(19 절)

(2) 우리의 복음 증거에는 무슨 고난이 따랐습니까?

III.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 절)

(9-10 절)

(2) 신유의 은사는 지금도 일어납니까?

육체의 치료보다 영적 치료가 우선 되어야합니다. (죄 사함)

***결론:** 이 두 지역에 일어난 복음 증거에 뒤따르는 표적이 나의 생활가운데 일어나야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릴있는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22. 주께 부탁하는 신앙 (The Faith to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행 14:19-28)

* 서론:

(1) 구 소련의 멸망 후, 공수양면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합중국이 건국 이래 수 만 명의 피를 앗은 최대의 테러사건을 맞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중, 모슬렘의 잘못된 종교관이 부른 무고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며, 곤고한 날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제야말로 바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물질만능주의, 권력 우상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2) 부탁하는 신앙이란 주님께 대한 항복과 전적헌신을 포함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뢰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조명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시 다.

I.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1) 환난 날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나요?

1) 주(Lord)께 부탁했습니다.(23 절)

2) 은혜(Grace)에 부탁했습니다.(26 절)

(2)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것은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집은 어떤 창수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 7:24-27)

II. 왜 부탁했습니까?

(1) 하나님나라(Kingdom of God)에 들어가려면 많은 난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1) 임한 하나님나라(Already)

2) 임할 하나님나라(Not Yet)

3)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거룩케하심이 그
목적입니다.(Sanctification)

(2) 하나님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어려움 없는 편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도리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달으며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장된 복"으로 믿습니다.

III.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1) 우리가 위탁할 때 주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26 절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나간 사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 (27 상반절)

2)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27 하반절)

(2)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친히 시작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따라 힘써 동사함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론:**

이제 제 1 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큰 핍박을 받고 살아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지를 거꾸러 돌아서 교회를 심방하고 권면한 후,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주께 부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강의 23. 감사, 기적의 생산공장 (행 16:16-40)

* 서론:

(1) 17 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뵉스터(Richard Baxter)는 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습니다. "입술의 감사(thanksgiving)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켜 흘러 넘치는 감사(thankfulness)를 만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찬양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관한 말들을 못하게 하여 넘치는 감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 살아 있는 믿음은 언제나 감사의 통로를 통해 열 매를 맺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보 감옥의 놀라운 기적은 그들의 찬미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적적인 생활, 창조적인 생활을 원하시면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2)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울과 실라와 빌립보성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 발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요? 그리고 이 찬송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요?

I. 바울은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1) 바울이 루디아의 집을 활동 본거지로 정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빌립보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린 한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주어 또 다른 일꾼을 얻게되었습니다.(16-18 절)

(2) 이것이 화근이 되어 두사람은 복음 때문에 붙들려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 습니다. (19-24)

(3)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게되었다”고 25 절은 말합 니다. 주를 위해 고난 당할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한 증거입니다. (벧전 4:14) 찬미의 제사는 복음때문에 고난 당할 때 성령님이 부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바로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 니다.

II. 이 찬송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1) 외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26)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왕상 19:11-12)

2)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안이 복음을 받게되는
기적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29-34)

(2)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적 변화를 체험하셨습니까? 감격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 결론:**

제 2 차 전도 여행의 첫 성, 빌립보 도시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게 시작한 그 교회는 훗날,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품고 감사하는 교회 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이 바로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 다. 여러분도 진퇴양단을 만날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신 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생산공장입니다.(*).

강의 25. 성경과 씨름하는 신앙 (Receiving & Examining the Scriptures) (행 17:1-15)

* 서론:

(1) 사도적 신앙은 언제나 성경과 씨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응수하셨으며(마 4:4) 성경을 왜곡시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요 5:39)이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서있다(엡 2:20)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2)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뢰아 교회에서의 전도사역에서 여전히 강조된 것은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잘 받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초대 교회는 성경과 씨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I. 성경 강론을 힘쓴 사도 바울

(1) 1-9 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성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회당에서 세 안식일(3 주간)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s)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것에 그는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2) 성경 강론이란 무엇입니까? (3 절)

1) 뜻을 풀었습니다.(Explaining)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2) 증명했습니다. (Proving)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3) 전했습니다. (Proclaiming)

선포했습니다.

(3) 교회의 설교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감화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 사도들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바로 받는 자세를 가짐으로 성경과 싸름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II. 성경 말씀을 받는 일에 힘쓴 데살로니가 교회

(1) 아마 이 사건은 마지막주간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바울의 권함을 받고 그를 좇았다는 것으로 되어있지만(4) 데살로니가전서 2:13 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 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했습니다.

(2) 그들은 성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1)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일꾼의 본을 받았습니다.

2)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3) 성령의 기쁨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살전 1:6)

4) 그들 안에 이 말씀이 일했습니다.(살전 2:13)

5) 이 말씀이 열매를 맺었습니다.(살전 1:3)

(3) 성경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III. 성경 상고를 힘쓴 베뢰아 교회

(1)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뢰아 교회의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성경 상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2)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았고

3) 날마다 그랬고

4)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힘쓸 때 브니엘의 체험이 일어납니다.

*** 결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말씀을 잘 받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은 사도들이 남긴 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입니다. 성경과 씨름하여 성경이 주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걸어 다니는 성경(Walking Bible)"으로 살아갑시다. (*)

강의 26.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The Man Who Was Compelled by the Word of God) (행 18:1-11)

*** 서론:**

(1) 고린도 교회는 바울 일행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평신도부부들이 1 년 6 개월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수고의 열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훗날에 쓰여진 고린도전 후서를 통해서 보여진대로 그 교회는 우리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의 모델이 될만한 은혜 충만, 말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2)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 사역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I.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 증거했습니다.

(1) 말씀을 내가 잡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4-5) 제네바역에는 이것을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라고 번역했습니다.(Paul who was compelled by the Spirit)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주체자이신 성령에 이끌려 황무지와 같은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2) 오늘날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Uncion)이 넘쳐흘러야합니다. 성령의 사 용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론적이고 사변적으로 흘러버림으로 메마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합니다.

II.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1) 7-10 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았으나 이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는 체형을 가하는 박해로 다가왔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말고 담대하라”고 하며 주신 말씀을 다 증거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최대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 28:19-20)

(2)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절대 보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보호를 원한다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자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III.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혔습니다.

(1)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의 보호 의식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의 일에 신실하게 임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이 복음증거에 초점을 맞춘 주님의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기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행 20:24)

(2) 바울이 자비량하면서 이 복음 증거에 혼신을 쏟은 것은 그의 중심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에 불타있었기 때문입니다.

*** 결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평안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명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화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27. 아볼로 사역의 평가 (Reviewing Apollos's Ministry For the Church) (행 18:12-28)

* 서론:

(1)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 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소스 데네를 잡아 체형을 가하는 핍박이 일어나 바울 일행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서 2 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바울은 서원대로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고 특별기도를 한 후, 3 차 전도여행 을 시작하여 가아사라,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 에베소 등지로 갔습니다.

(2)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사역한 기록이 나오니 다. 한마디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24)로서 예수님을 가르친 훌륭한 선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 여 성령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빛아래서 아볼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I. 아볼로의 초기 사역

(1)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24-25)

-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 대 학자
- 성경(구약)에 능한 자
- 주의 도를 배운 자
-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 자
- 요한의 세례 만을 아는 자

(2) 그의 사역은 율법적 경향을 띤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지 예수 님 자신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약했습니다. 수단들을 알았지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복음의 중심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마 11:25-27)

마치 거둢나기 전의 니고데모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말씀사역은 성령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II.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

(1) 26 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아볼로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령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 이것은 행 19:1-7 이 증거합니다.

- 고후 2:21-22 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 주님의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 주고받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 오늘날 이런 평신도사역이 요구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말씀안에서 만나고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겸손히 배우며 순종하여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엡 4:11-15)

III. 은혜가운데 있는 아볼로의 사역

(1) 27-28 절에 보면 두 사람의 권면을 들은 아볼로는 “은혜안에서 사역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증거가 바울의 증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행 18:5, 20:21)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용납하고 그의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2) 아볼로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는 사명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 율법적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기울어졌습니다.

- 문자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 과거와 미래에만 머문 사람이 현재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듣기만 하던 사람이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 결론:

교회는 아볼로의 구약적 사역에서 신약의 복음적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현실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그러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합니다.(*).

강의 28. 에베소 교회의 부흥 (The Revival of Ephesian Church) (행 19:1-20)

* 서론:

(1) 바울의 3 차 전도 여행시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19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의 열매 로 마치는 또 다른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2)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1. 성령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열두어 제자 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2)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예수에 관하여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뿐이었습니다.

(2) 그때 바울은 세례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며 그를 믿으라 했다고 하니 그들이 듣고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3)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못했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 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안다면 그는 성령세례를 받아야합니다. 아 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성령을 받아야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믿게 되는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언이나 방언을 할 수 없다 해서 성령받은 것을 의심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더 닮고 싶어 기도하고 이 좋은 주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II. 말씀을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1) 8-10 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1) 기간: 3 개월은 회당에서

2 년은 두란노서원에서(10) “날마다 가르쳤습니다”.(9)

2) 무엇: 하나님나라에 대한 강론(8)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 성령의 역사는 곧이어 말씀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성경을 가르쳐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부흥은 성경을 깨달아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in), 말씀과 함께(with)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III.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1) 성령의 부으심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1) 능력으로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남(12)

2) 귀신이 도망감(12)

3) 두려움이 생김(17)

4) 회개운동이 일어남(18-19)

5) 말씀이 흥왕하고 권위를 얻습니다.(20)

(2) 진정한 부흥은 가정, 직장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의 역사는 점점 더 이방 지역에까지 파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 결론:**

에베소교회의 부흥은 이상적 교회 부흥의 모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났고, 마귀가 도망가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자신 속에서부터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

강의 29.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Visit to Rome Also) (행 19:21-41)

* 서론:

(1)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불을 끄려는 마귀는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온 소 아세아를 소란케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간 길은 좁은 길이였지만 그것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의 가슴에 품은 성령의 비존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하던 환상은 고난 속에서도 더 뚜렷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도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2) 우리는 21 절에 보이는 로마에 대한 바울의 선교 비존이 어떤 것인 지를 알아보시다.

I.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비존입니다.

(1) 바울은 에베소에서 3 년 동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비존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와 각 나라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행 9:15) 정말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임금들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비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비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비존"을, 야곱은 "하나님나라를 그림 자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비존"을

가졌고, 요셉은 "하나님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표현이지만 한결같이 성령이 주신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행 2:17)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의 비존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찾고 그것으로 연단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II. 그것은 고난가운데서도 불타오르는 비존입니다.

(1) 에베소서의 큰 부흥에 비해 고난 역시 극심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중 심한 일부 사람들이 에베소시의 아데미 우상의 은감실을 만드는 기업이 바울의 복음증거로 인하여 타격을 받자,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23-29)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비존이 약 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3 절에 보면 바울의 비존은 "로마로 가리라"는 것이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비존대로 그 날을 사모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난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려 오래 참았습니다. 이것이 비존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2) 성령의 비존은 어려운 중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불타는 소원 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III. 그것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존입니다.

(1) 성령의 비존을 가진 사람의 공통분모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 1:8) 방법이 다양할 뿐이지 공통적인 것은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것이 성도의 비존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하리라는 꿈은 복음증거의 꿈이었습니다.

(2) 세계를 가슴에 안은 성령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세계적인 성격(Universalism)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꿈꾸며, 그것을 위해 재능과 물질을 드리며, 공부하며, 건강해야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만이 나그네 인생 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꿈은 사라 지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은 우리의 비존을 더 불타게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성령의 비존은 무엇입니까? 그 비존을 불타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

강의 30. "청년이여 일어나라" (Oh, Young Man, Rise Up!) (행 20:1-16)

* 서론:

(1) 에베소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을지라도 주의 복음은 메이지 않 았습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헬라 에 3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공모를 피해 마게도니아로 다시 들어가 드로아에 7 일간 머뭙니다.

(2) 성령의 환상을 통해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진 유서 깊은 곳, 드로아에서 바울은 1 주일간 강론하였습니다. 강론 중, 유드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 층 에서 떨어져 죽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 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청년 유드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신앙생활에 바른 영적 태도를 배웁니다.

I. 청년, 유드고의 미지근한 육적 태도

(1)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4-6 절까지 보면 소바더 (베뢰아),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데살로니가), 가이오와, 디모데(더베), 두기고, 드로비모(아시아)가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던 유드고가 창에 걸터 앉은 자세를 보니 헌신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잠을 잔 것을 보면 그는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1) 앉은 자세 -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자세,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의 자세

2) 말씀들을 때 깊이 잠 잔 것은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요나의 경우

(2)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창조자를 생각하고 그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II. 장년, 사도 바울의 영적 태도

(1)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이것은 영적 사고였습니다. 바울은 곧 내려가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렸습니다.

- 1) 책임지는 자세
- 2) 기도하는 자세
- 3) 사랑하는 자세

예: 엘리사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책임지는 자, 십자가
지는 자로 일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주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돌 탕에 맞을 각오를 하고 무덤 앞까지 가서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2) 바울의 영적 태도 곧 십자가 지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는 자가 됩시다.

III.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태도

(1)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때이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유두고의 일로 두고아에서의 강론이 매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강론의 효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오래 이야기함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살아남으로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크신 위로를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 현재의 곤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실수 있으십니다. 청년의 날은 소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고민과 곤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때야 말로 주님이 놀라웁게 역사하는 순간임을 알고 복음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활용합시다.

*** 결론:**

고민이 많은 청년의 날! 육적인데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리에 서 뜨거운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생애를 통해 소생의 역사가 일 어날 것입니다. 부활, 부흥, 소생, 능력, 치료는 바울처럼 십자가 질 때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라”고 한 바울의 간증적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합시다.(*).

강의 31. 에베소 교회의 부흥 (The Revival of the Ephesian Church) (행 19:1-20)

* 서론:

- (1) 인사: 미주총회 남가주 노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중의 하나로 성장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나 사람숫자나 프로그램보다도 여러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조금씩 나타내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 (2) 그 증거의 하나가 기도의 은사로 일하려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40 일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 기도에 관하여는 많이 아는데 기도를 참으로 맛보거나 그 맛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더욱이 장로교인들은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서 어디가 절단된 사람, 비판에 익숙한 사람, 메마른 사람의 자화상을 갖기 쉽습니다. 장로교인들은 더욱 더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역동적이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칼빈은 성령신학자, 주권주의는 성령주의이기 때문이다)

- 아무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준비했어도 그것을 취하여 입는 것이 없다면 내게 무용지물인 것입니다.(골동품)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 (3) 오늘 저는 이 귀한 축복된 자리에서 에베소서교회의 부흥에 대한 최근에 받은 말씀을 같이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바울의 3 차 전도 여행시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19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의 열매로 마치는 또 다른 오순절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찍이 마가달가방에서, 핍박을 받는 현장에서, 사마리아성에서, 고넬료가정에서 일어나나 반복적인 오순절의 역사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역사상으로 초대교회, 개혁자들, 영국의 청교도들, 미국 대각성운동, 1907 년도의 한국부흥운동은 모두 오순절의

성령역사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부흥의 모델 가운데 하나인줄 압니다.

= 여러분에게 이런 부흥이 사모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I.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다가 12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2) 아마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예수에 관하여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2) 그때 바울은 세례요한이 증거한 이가 예수라고 하면서 그를 믿어라 하여 그들이 세례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이란 말입니다.

- 일반적 견해: 성령세례=중생/ 성령세례= 중생/

- 나의 견해: 성령세례=중생=성령의 능력의 세례

예: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성령관이며, 박윤선박사의 성령관이다.

단회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믿는 것이다.

(3)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부흥과 직접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예수님에 관해서만 안다면 그는 성령세례를 받아야합니다.

-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성령을 받아야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믿게되는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예언이나 방언을 할 수 없다해서 성령받은 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고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요사이 마태 5 장에 나오는 8 복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맺는 열매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4)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은 받은 자입니까?

- 성령받았다고 믿으면 그 증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 2:17-21 절의 요엘의 예언대로 내 속에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여러 분은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요사이 사람들은 교회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령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존중해야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 성령을 받으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교제, 주께 영광, 평강)

엡 5:18, 믿음, 감사, 찬양, 삶의 방향이 온전해진다.

= 그 분의 뜻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II. 말씀을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1)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8-10 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래 말씀을 사역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했음을 보입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1) 기간: 3 개월은 회당에서(8)

2 년은 두란노에서(10)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2) 무엇: 하나님나라에 대한 강론(10)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 already & not yet/ 성령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

3)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

행 20:21 회개와 믿음으로

행 20: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 20: 오래 참음으로

행 20: 말씀에 붙들어 매는 일을 했다.

(2) 성령의 역사는 곧이어 말씀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동안 성경을 가르쳐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부흥은 성경을 깨달아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 성령은 말씀 안에서(in), 말씀과 함께(with)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 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1)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예: 갈라디아이단)

2)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골 2:7)

3)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에 있다.

(딤후 3:16-18)

(3) Calvinism 은 메마른 말씀운동이 아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운동이다.

성경공부한 후에도 감격이 없다면 이것은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한다.

- Q.T 안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은 메마른 자리에 거하게된다.

- 직분자가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히 서지 않는다면 외식하게된다.

- 바울의 3 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20:)

1) 방법- 성경의 권위 = 하나님의 권위(32)로 믿고 말씀에 붙들어 매 려고했다.

2) 증거- 회개와 믿음(21)

3) 도구- 겸손과 오래 참음(31) - 그릇

4) 일꾼- 성령이 세운 감독자들(28)(24) -헌신, 성결 위주였다.(33-34)

5) 도구- 고난이 있었다.

=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각종 성경공부반에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III. 은혜가 물결치는 부흥입니다.

(1) 베뢰아사람들이 데살로니가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정말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실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남(11)

바울의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

2) 귀신이 도망감(11)

3) 두려움(경외심)이 생김(17)

4) 회개운동이 일어남(18-19)

- 은 오만되는 책을 불사름

5) 말씀이 흥왕하고 권위를 얻습니다.(20)

- 성경공부, 성령의 은혜의 삶

(2) 진정한 부흥은 가정, 직장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의 역사는 점점 더 이방지역에 까지 파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 이것이 청교도의 부흥이었다.

- 그들은 역사의 자취를 남긴 신앙의 거인이었다.

- 예: 성경에 대한 열정 (Rogers)

예: 예언자로 통한 Welch

예: Baxter 와 같은 사람은 정말 부흥의 일꾼들이다.

= 이들은 모두다 이 긴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godly sorrow)

= 1907 년도 부흥도 하디선교사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는 의료선교사가 변해 부흥사가 되었다.

*** 결론:**

(1)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이상적 부흥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났고, 마귀가 도망 가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2) 그러자면 우리 자신 속에서부터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흥의 불이 오늘밤 여러분의 가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기도:**

(1) 이 부흥의 불이 내게 있는가? 이 부흥의 불이 당시에게 없다면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2)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은혜의 물결이 채워지게 하소서

(3) 성경공부를 즐기는가?

(4) 성령을 받았는가?

강의 32. "밀레도에서의 고별설교" (The Last Sermon of Paul At Miletus) (행 20:17-38)

* 서론:

(1)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장로)들을 불러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 년 동 안의 에베소 교회 목회 활동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물려오는 이단의 교훈 을 경계하여 진리를 파수해 나가라고 권고했습니다.

(2) 에베소 교회의 목회활동은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의 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섬겨야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목회의 본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I.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1)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1) 성령으로 시작한 복음입니다.(19:2)

2) 하나님나라의 복음입니다.(19:8, 25)

3) 회개와 믿음이 골자입니다.(21)

4)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했습니다.(27)

(2)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요소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점검할뿐 아니라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힙시다.

II.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1)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어떻게 증거했는 가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5 절에 보면 바울이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 본은 무엇입니까?

1) 모든 겸손과 눈물(19, 31)

2) 모든 간계를 인해 당한 시험을 참음(19)

3) 꺼림이 없는 증거(20, 27)

4) 목숨을 내댄 증거(24)

5)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진리를 적용했습니다.(33, 35)

- 자비량 전도

(2)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됩니다.

바울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쓰시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육체의 도구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III.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가요?

(1) 교회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 부흥은 바른 교훈의 파수로서 주님 교회가 나갈 목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가 타락하고 마침내 사탄의 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세운 사역자를 통하여 성령의 경고를 받아 깨어 준비하며,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진리를 파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2) 우리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바른 복음을 받고 있는 지를 살피고, 바른 복음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살피며, 바른 복음을 파수 하는 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바울의 고별설교의 내용에서 우리교회의 부흥의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기도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파수되는 교회가 되도록 뜨겁게 간구합니다.

(*)

강의 32 “보혜사 성령 하나님” (The Holy Spirit, Our Counsellor) (행 21:1-16)

* 들어가는 말:

(1) 본문은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선교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입니다. (고소-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염려하는 사 람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 주님 승천후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I. 바울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감동

(1) 두로에서 7 일을 머물 때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으로 들어가지 말라”(4)고 권고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2) 성령의 권고는 미리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복음증거의 꿈도 성령의 감동이었는데 그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불구덩이 속을 자원하여 뛰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당하는 환난에 대한 예고와 아울러 늘 깨어 준비케 하려는 성령의 자상하신 인도였습니다.

II. 아가보 선지자를 통한 성령의 예언

(1) 8-14 절에는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위협을 예언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빌립의 딸 4 명도 함께 만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경고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2)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5:3)는 성령의 무한한 역사를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보편적 섭리에서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 수단이 없이도 행하시고, 그 수단을 초월하거나 혹은 그 수단을 역행하시면서도 행하시는데 언제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며 자유하신다”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예언, 방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최종적인 권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정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말씀이 성령의 살아있는 검인 것을 알게됩니다.

III. 바울사도 양심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1) 이런 성령의 권고를 받았지만 바울은 그의 양심속에 주시는 성령의 권고를 따라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구렁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13)

(2) 우리 각자는 자기 양심(영)에 주께 받은 성령의 비존이 있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주신 일거리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바울의 꿈은 성령이 주신
환상이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일생에, 금년에 주신 성령의 꿈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합니다.
이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목표로 움직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 결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나 역사하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감동과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각자가 가진 선한 양심 속의 성령의 인도가 우선
순위임을 보입니다.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의 33.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Lord?) (행 22:1-30)

* 들어가는 말:

(1)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Work)이듯이 기도 역시 말씀 못지 않게 중요한 교회의 사역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는 일은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사역입니다.

(2)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사역)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기 나온 바울의 다메섹 회심 간증은 인생의 중대한 두 질문을 해결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I.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1) 8 절 “주여 뉘시니이까?”

(2)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II. 그리스도가 부탁한 일거리를 잘 알았습니다.

(1) 10 절,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1)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15)

2) 이방인을 위한 사도 (21)

* 이런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며 기도 없이는 도저히 진보를 나타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 중보기도는 주님이 부탁한 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중보기도는 제사장적 사역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는 욕조와 같아 개인이 날마다 들어가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2) 중보기도의 모본

모세(출 17:8-13)

예수님(롬 8:34, 히 7:25, 요 13:-17:)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끊임없이 통치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요 16:24, 행 8:14-24, 행 19:11-16, 요 15:7)

4) 끈질긴 기도가 중요합니다.(사 55:8-11)

“우리가 같은 간구를 두 번이나 세 번만 반복해선 안된다. 필요할 때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자꾸만 해야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된다. (칼빈)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다. (어거스틴)

강의 35. “눈을 돌리시는 예수님”(What Shall I do, Lord?) (행 22:1-30)

* 들어가는 말:

(1)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Work)이듯이 기도 역시 말씀 못지 않게 중요한 교회의 사역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는 일은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사역입니다.

(2)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사역)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기 나온 바울의 다메섹 회심 간증은 인생의 중대한 두 질문을 해결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I.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1) 8 절 “주여 뉘시니이까?”

(2)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II. 그리스도가 부탁한 일거리를 잘 알았습니다.

(1) 10 절,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1)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15)

2) 이방인을 위한 사도 (21)

* 이런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며 기도 없이는 도저히 진보를 나타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 중보기도는 주님이 부탁한 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중보기도는 제사장적 사역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깨끗케 하는 욕조와 같아 개인이 날마다 들어가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2) 중보기도의 모본

모세(출 17:8-13)

예수님(롬 8:34, 히 7:25, 요 13:-17:)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끊임없이 통치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요 16:24, 행 8:14-24, 행 19:11-16, 요 15:7)

4) 끈질긴 기도가 중요합니다.(사 55:8-11)

“우리가 같은 간구를 두 번이나 세 번만 반복해선 안된다. 필요할 때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자꾸만 해야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된다. (칼빈)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다. (어거스틴)

강의 35. 로마에서의 부흥(행 28:11-31)

* **목표:** 당신은 로마에서의 부흥을 일으킨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한다.

* **서론:**

(1)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형제들의 위로를 받으면서(15) 높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기 위하여 원색적인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주었습니다.(롬 1:10-11)

(2) 이 시간에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많은 신자들이 순교할 이유가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드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헌신의 대상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불태운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함으로 은혜받고자 한다.

I. 바울은 하나님나라를 전파했습니다.

(1) 바울은 세례요한, 예수님이 증거하고 여러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 23 절

- 31 절

=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1)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가리킨다.

2) 장차 그 나라는 한 장소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이다. (예: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실상이다)

3)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만 누려지는 나라이다.(롬 13:14)

4)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 백성이다.

= 그 나라의 특성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 9:6)

(마 13:)

(2)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이다.

그 나라를 세우는 자가 큰 일을 하는 자이다.

=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II.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복음을 설명하신 주님은 이제 바울 안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 23 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 롬 4:5의 증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거를 받은 복음이다.

= 그러므로 그 증거가 견고하고 풍성하다.

(2) 우리는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큰 확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 에스더의 금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금식은 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III.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거했습니다.

(1) 복음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입니다.(고전 15:3-4)

23 절 - 예수님의 일

31 절 -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2) 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 결론:**

(1)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인 로마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2) 로마 10 대 박해는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도구였습니다.